



중년과 성형수술



이 덕 주

이덕주 성형외과

확실히 시대는 변하고 있다.

문민정부 이후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에 맞추어 생활을 바꿔야 살아 갈 수 있다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 줄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과거에 비해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기도 어려워졌고, 따라서 교육에 쏟는 부모의 정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유태인의 탈무드 중의, 자식에게 고기를 주기보다(재산을 물려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말을 실천해서인가?

그래도 자식에게 사교육을 시킬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낮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보핍사원을 하기도 하고 학창시절 전공을 살려 일을 하든지 다시 옛 직장에 취업하는 여성의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어졌다. 아무튼 중년여성이 교육비로 나가는 부분을 메우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가계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이 늘어 상대적으로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활동이 커짐에 따라 스트레스 역시 커지고 그만큼 탈출구를 찾는 일도 늘었다고나 할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모양을 바꾼다든지 가벼운 쇼핑을 하던 것을 떠나, 과거에는 가계에 부담이 있어 생각도 못하던 미용 성형수술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여진다. 자기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질 때, 평소 자꾸 거슬렸던 작게는 흉터, 늙음으로 생겨버린 여러 주름들을 과감히 없애고 싶어한다. 자기만을 위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질 때 과감히 전문의와 상담 후 수술을 준비하는 경우를 보게 된 것이다.

세월은 사람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대학 교수 시절, 노인층이 많은 마이애미로 유학을 갔었다. 여유있는 그곳 노인들은 어떻게 하면 남은 생을 즐겁고 멋있게 살까 하는 생각만 하는 것 같아 보였다. 그 당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그 나이로는 큰 부담이 되는 성형수술도 과감히 하는 추세여서 조금 놀랐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도 역시 미국의 추세를 따라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내심 들기도 한다.

오랜 친구가 운동을 같이 하자며 어울리자고 할 때, “나는 아직 할 처지가 못돼.” 하면 그 친구는 “이 나이엔 이제 살아 온 세월보다 살아 갈 세월이 적을텐데 뭘 그러니” 하던 말을 무심코 넘기곤 했는데 그 말이 마음에 닿는다. 나이가 들수록 젊어 보인다는 말과 여자에게 미인이라고 하는 말은 비록 거짓일지라도 즐겁게 해주는 말이다. 40이 되었으니 “젊고 건강하게 삼시다” 라는 말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나이가 들어 하는 수술 중 눈꺼풀을 올리는 수술의 빈도가 가장 많다. 그러나 심한 경우는 눈꺼풀이 눈썹과 함께 늘어지므로 머리 안을 절개하여 보완해야만 한다. 과거에는 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여 절개선이 길어지고 눈 바깥쪽으로 봉합선이 보여 불만이었던 것도 해결되고, 효과도 좀 더 확실해지고 오래간다고 설명하면 머리안을 절개하여 수술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환자가 월등히 많다. (과거에는 대부분 머리안의 절개선이 비교적 길므로 이마의 주름살까지 없앨 경우가 아니면 잘 권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점차 절개선의 길이가 짧아도 가능해지고 있으므로 큰 부담이 없다.)

하루는 결혼한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소위 효도 성형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적당한 선에서 수술 계획을 잡아 드렸더니 이제는 이것도 하면 안될까요? 이것은 어떨까요? 하고 점차 많은 부위의 수술을 상담하기도 했다. 이것을 통해 볼때 나이가 들수록 미에 대한 추구가 더하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

혹은 며느리의 완곡한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술을 하는 노인층도 간혹 볼 수 있는데 예상 외로 본인이 갖고 있는 불만을 정확하고 상세히 토로하여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다.

결론적으로 여유있는 노인층이 늘어나고, 직장을 갖는 중년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성형수술의 욕구도 비례한다고 생각한다. 세월은 사람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한다. 72
